



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국 내 수의과 대학의 조류질병과는 조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체 혹은 병원체, 역학 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질병 방역대책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나아가 병원체의 여러 가지 성상에 중점을 두어 방역대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병원체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에 대해 좀더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에 있는 수의과대학을 찾아 릴레이 형식으로 가금질병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금질병에 입문하게 된 계기, 가금질병 이야기, 질병감정의뢰 절차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달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선중 교수를 찾아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 조류질병 전담교수

김선중 교수는 가축위생시험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를 거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임하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최초로 조류질병만을 전문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에 가축위생시험소 계역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 전임교수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30년 가까이 학계에서 가금질병연구를 하며 수많은 인재육성과 업적을 남기며, 금년을 끝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중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 교수는 기존에 없던 분야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연구실은 물론 한 개의 시험관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비 지원도 쉽지가 않았다고 한다. 양계연구에 몰두해야 함에도 연구비 마련을 위해 돼지 콜레라 연구를 도와주면서 연구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닭 사체를 검사하면서 오해를 받는 고초도 있었고 연구를 해야 함에도 실험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복도에서 시험을 하기도 하는 어려움 또한 극복해 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금질병연구라는 일련의 목표가 있었기에 김선중 교수는 인내해 나갔으며, 차츰 국내 가금질병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1991년도에는 병원성이 높은 감보로병(IBD)을 밝혀낸 것을 시작으로, 종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RE바이러스, 닭전염성빈혈(CAV) 등 여러 질병들을 밝혀내면서 양계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스테로폼 상자와 아이스 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농장에서 발생한 질병검진을 의뢰하면 병성감정진단, 혈청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질병검진을 하며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검사의뢰를 받아 검사하고 있다. 다만 김선중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금년 4월 이후부터는 교수로서의 책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에 질병검사의뢰를 줄여나가고 있다.

질병감정을 의뢰하는 경향을 보면 직접 농가에서 의뢰는 경향보다 종계장, 부화장, 약품회사, 사료회사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먼 길을 직접 올라와서 가검물을 맡겼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낭비가 많았으나 지금은 택배산업의 발달로 이러한 불편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빠른 시간 안에 검사체를 받아 검사 할 수 있게 되었다.

김 교수는 농가에서 검사·의뢰시에는 유념할 사항을 알려주었다. 검사를 원하는 폐사체를 보낼 때에는 신속하게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밀봉해야 하며, 여름과 같이 높은 온도로 인해 폐사체의 부패가 가속화 될 때는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스 팩과 함께 담아 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은 동물약품분야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부분으로 농가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질병판단의 핵심은 정보제공이 관건

김 교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검사를 의뢰할 경우 가검물만 보내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장에 있지 않아도 현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사항들을 전달해 주어야 이를 바탕으로 추측 범위를 좁혀 갈



▲ 조류질병과 실험실 모습

수 있다고 한다. 즉, 농가들이 가검물을 보냈는데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후 사항들을 자세히 전달해 주어야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사람의 경우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있지만, 닭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배경정보를 관리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이러한 사항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작정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말보다 몇 %의 산란율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몇 % 떨어졌는지, 총 사육수수, 폐사수, 1~2주일 이전부터 일별산란율, 기타사항 등 정보들이 제공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질병진단을 할 수 있음을 전하며 다시한번 농가들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정확한 질병검진의 관건임을 전했다.

이는 농장장의 사육기록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증상들을 농장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첨부해 주는 것도 기초가 되어 검토됨으로서 '사막에서 바늘 찾는 우'

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이사항과 사육정보들이 모여져 추정하는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정확한 결과를 진단하게 되는 것을 농가들이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정을 의뢰하면서 농가들이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점점 발달되는 기술로 인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파악이 가능해지고 있듯이 이번 HPAI 발생 때에도 빠른 의사 AI진단 판단 또한 기술발달로 인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질병을 초기에 막을 수 기반을 강화되고 있어 질병감정이 보다 수월해져 가고 있다.

ND 백신지원 설득력 있어

김 교수는 현장에서 매년 문제시되는 질병은 뉴캐슬병을 말하며 지난 위생방역대책위원회에서도 ND백신지원 건을 다루었듯이 백신지원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산란계의 경우 예전에는 ND 생독백신을 3



▲ 수의과 대학 전경

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란계의 경우 사육기간이 긴 관계로 틀림없이 오일백신 등이 들어가는 부분이기엔 농가 경쟁력 재고차원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비용에 대한 고려의 뒷받침 하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1차 산업인 양계산업의 피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아 양계에 정부가 지원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ND백신지원의 경우 농가들에게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기에 이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안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동물이란 표현보다 외국에서도 'Food Animal'이라는 용어를 쓰듯이 국내에서는

식용동물이란 표현이 보다 좋을 것으로 본다는 말을 꺼내며 식용동물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축산은 식용동물분야로서 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식용동물분야에서 수의영역은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실력있는 인재들이 진출하여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동물 수의분야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외면하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국내 대학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식용동물분야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식용동물분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기금, 인센티브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식용동물 수의분야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활약해 주길 바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 | 기영훈 기자)